

역사의 전위에 선 한국 지성의 발자취

《한국의 지성 100년》

김기봉 | 경기대 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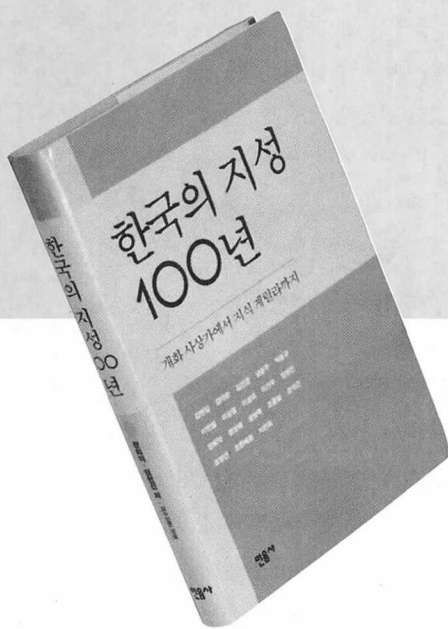
지난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조의 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었다. 지난 100년은 이른바 반만년의 우리 역사에서 한반도의 반쪽에서나마 처음으로 이 꿈을 실현시켰던 시간이다. 이 시간을 우리는 정말 압축적으로 살았다. 우리가 압축적으로 산 만큼 마음고생 또한 적지 않았다. 그 마음고생을 가장 철저하게 한 사람이 바로 지식인일 것이다.

지난 1세기 한국지성인의 활약상 짚어봐

근대란 막스 베버의 말대로 '세계의 지성화'(Intellektualization der Welt)를 특징으로 한다. 근대 이래로 지식인은 이 책의 서론적인 논문 <지식인은 누구인가>에 씌어 있듯, "현상에 적응하고 동화하기보다는 현상을 개혁하고 변화, 발전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위론적인 지식인상은 현실에 존재하는 지식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식인은 누구보다도 역사적 상황의 규제를 받음에도 그 상황을 넘어서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운명을 스스로 걸머진 자다. 새 천년을 맞이해서 지난 100년간 우리 지식인이 이런 운명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묻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기획이다. 《한국의 지성 100년》은 이런 기획의도로 씌어진 책이다.

평자는 이 책의 성과를 훼손하거나 과소평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지 지성사적인 연구가 무척이나 미약한 우리 역사학계의 현실에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지성 100년의 시대구분이 너무 편의적이다. 대한제국에서 1945년 해방, 해방 이후부터 1960년, 1961년부터 1987년, 그리고 그 이후에



강만길 외 지음
민음사/A5신/332면/15,000원

서 현재라는 구분은 지성사적인 맥락의 시대구분이라 볼 수 없다. 각 시대의 화두가 개화와 독립,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독재와 민주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이어졌다는 분류방식에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근대 한국지성 100년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1989~1990년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한 좌파 이념의 쇠퇴라면, 위와 같은 시대구분은 불완전하다.

둘째, 지식인에 대한 정의가 너무 당위적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지식인은 모던 시대의 지식인이 품었던 '세계의 지성화'라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식인은 이제 피지배계층의 대변자로서 권력에 대항할 뿐 아니라 스스로가 권력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을 반성해야 한다. 권력의 억압적 측면이 아니라, 생산적 측면이 지식인에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난 100년 간 우리는 서구적 근대를 따라잡기 위해 시간과 전쟁을 벌여야 했다.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은 정체성의 위기와 사회병리적 현상을 낳았다. 따라서 이제 지식인은 변화와 혁명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삼십년에

삼백년을 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으로 '성찰적 근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거대담론의 종말과 함께 역사의 정답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시대의 지식인은 '잠수함의 토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잠수함의 산소 부족이 낳을 수 있는 위기상황을 미리 감지해주는 토끼가 없다면 잠수함에 탑승한 승무원들은 갑자기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지식인은 지식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지식인은 '지식기사'일 뿐 지식인은 아니다. 지성은 소유의 대상이거나 교환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고 사용 가치로 의미지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시대의 지식인은 '신지식인'으로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지성의 종말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을 경고하는 '잠수함의 토끼'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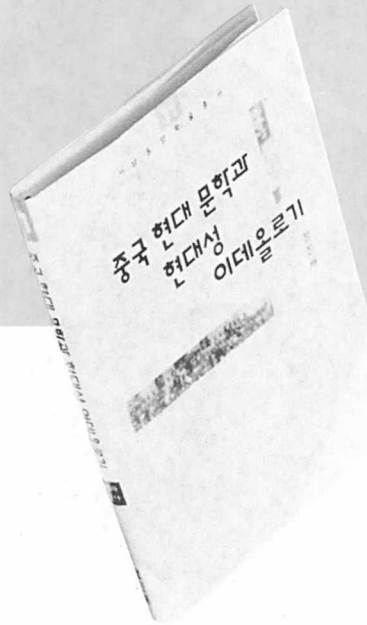
신문화사적 시각의 새로운 지성사 요구돼

끝으로, 오늘의 역사학에서 각광받는 새로운 지성사의 시각으로 씌어진 역사를 기대한다. 지난 100년 간 서구 역사학은 관심의 초점을 '사상'에서 '지성'으로, 그리고 '의미'로 변화시켰다. 탁월한 사상을 조명하는 사상사에서 사상의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지성사로 전환했고,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 대중의 생각과 감수성을 재현하는 새로운 지성사가 나타났다. 오늘날 우리는 지성을 대학이 아니라 거리와 카페, 그리고 심지어 대중매체에서도 발견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개화사상가에서 지식계릴라까지>의 지성사를 쓰기 위해서는 신문화사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

중국문학사 '다시 쓰기'의 새로운 출발점 제시해

《중국 현대 문학과 현대성 이데올로기》

김은희 | 전북대 중문과 교수



정진배 지음
문학과지성사/A5신/420면/15,000원

문학사 '다시 쓰기'(重寫)가 중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 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중국문학계에서도 다시 쓰기에 대한 관심은 결코 적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동아시아, 문학사의 새로운 지평'이란 주제로 문학사 기술에 관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기까지, 1990년대 이후 중국문학 연구자에 의한 문학사 다시 쓰기는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됐다.

근대 중국 지식인들의 사유 설명해

문학사 다시 쓰기란 거칠게 말하자면 하나의 글쓰기로 다른 글쓰기를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글쓰기는 일정 정도 다시 쓰기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다시 쓰기의 관건은 문학현상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석과 역사적 설명을 제출할 수 있는가다. 즉 다시 쓰기의 대전제는 현대문학의 성격과 그 역사 콘텍스트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학사 기술은 문학현상의 실체와 무관한 도그마로 전락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현대 문학과 현대성 이데올로기》는 문학사 다시 쓰기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다. 지은이는 외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식과 대상이라는 두 개념이 본질적으로 밀접하게 뒤얽혀 있으며, 인식주체와 대상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파악한다. 그래서 지은이는 인식의 다양한 형식이 어떤 방식에 의거해 대상을 상이하게 해석해내는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논리적 일관성보다는 철저한 '나'의 해석을 중시하고, 글의 내용보다는 대상을 담아내는 형식이나 사유의 방식을 통해 독자와 대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 현대의 문학현상과

관련지어 당시 근대 중국 지식인들이 '왜' '그렇게' 사유했던가의 문제를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사고한다.

5·4기 계몽담론에 대한 중층적 해석 돋보여

이 책에서 지은이는 중국 현대의 문학현상, 특히 5·4기의 담론 전체를 하나의 문화적 텍스트로 간주하고 그 텍스트와 콘텍스트간의 관계와 의미망을 짚어보고자 한다. 5·4기의 담론은 백화문운동, 중체서용(中體西用)론, 근대 자아 등의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근대 수립을 위한 계몽담론으로 읽힌다. 지은이가 보기에, 5·4기 계몽담론은 문학의 문학 외적 목적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고전문학에 대해 질적 차별성을 강조하면서도 계몽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유교미학의 기본 패러다임인 문이재도(文以載道)론을 답습한다는 점)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민중을 담론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담론의 창조와 수용에서 민중을 배제하는 아이러니한 형국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몽담론의 논리상 이율배반성은 후스(胡適)나 루쉰(魯迅) 등의 글에서 논리상의 양가성이나 모

호성으로 나타난다. 결국 5·4 담론은 실재와의 사이에 일정한 간극을 보이고 있으며, 5·4 계몽 텍스트는 자기 모순성과 함께 이데올로기적 중층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는 근대 자아의 패러다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자아 내부에 발생하는 양가적 자이분열 현상 및 이들 분열된 자아간의 이질적 상충성 때문에, 근대 자아의 패러다임은 이데올로기적 중층성을 보인다. 이로써 지은이는 중체서용의 패러다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공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설정됐을 가능성이 높듯, 현대소설의 근대적 자아는 중국의 근대 수립을 돕기 위해 전략적으로 채택된 서구적 수입, 즉 '용'(用)에 근접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지은이는 5·4 시기와 그 이후의 현대문학을 관통하는 논리체계를 방대한 자료를 통해 모색하고 있다. 그것이 아직 완전한 체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은이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논리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지은이의 논지 전개 가운데, 마오둔(茅盾)이 언급한 '감상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해석, '대중화'와 '독창성'의 양립 불가능성, 그리고 후스와 천두슈(陳獨秀)에게서 나타나는 문학의 대중화 지향을 민중 민족주의와 연결시키는 논리 등등의 문제는 좀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5·4 텍스트를 단선적으로, 그리고 단일한 의미체계로 파악하지 않는 저자의 연구방법론은 문학사 다시 쓰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든든한 버팀대가 되리라 생각한다. ●

저항과 모색의 중국 현대사 총체적으로 조망해

《반조류의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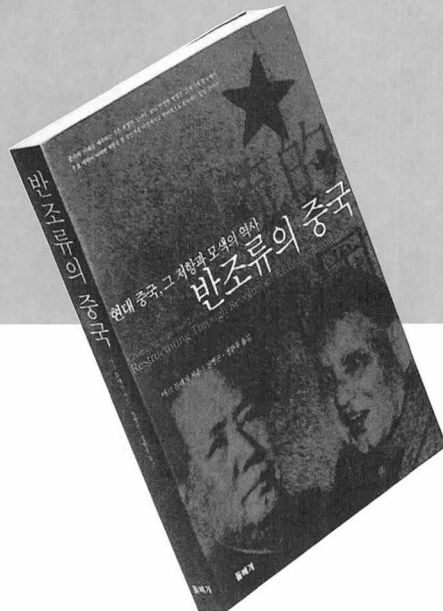
박선영 |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이 책은 현대중국을 전제지배 체제에서 단명했던 공화국(청말과 중화민국), 권위주의(국민정부 시기)와 혁명적 국가 사회주의(중화인민공화국 시기), 그리고 구조개혁중진(개혁개방 시기) 중국사회로 나눠 분석함으로써 현대중국의 저항과 모색의 모습을 그려내는 동시에 미래의 중국을 예견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중국을 좀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중국을 그 자체의 세계로 파악하는 중국학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참여자적인 관점을 도입해 행위자들을 내재적 관점에서 관찰했으며, 사회과학적인 비교방법을 활용해 모택동과 등소평 시기 농촌과 도시 정치경제의 상이점과 지속성을 분석했다.

참여자적 관점으로 현대중국의 전말 밝혀

분석의 초점은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승리했으며,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개혁개방이라는 다양한 위기와 모순 속에서 어떻게 저항하며 중국식 특징을 모색해 가는지에 맞춰져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는데, 1부(1~3장)에서는 역사적으로 현대중국의 지속성과 변화를 규명했다. 2부(4~8장)에서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를 비교방법을 통해 구조적으로 설명했다. 결론에서는 정반대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 예상치 못한 일을 예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충고했다. 따라서 이 책은 현대중국을 포괄적으로, 특히 지속성과 변화 속의 저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밀도있게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을 때 몇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정치학자인 지은이는 사회주의 이념과 정치 과정을 둘러싼 갈등관계에는 관심을 뒀지만 사



마크 블레처 지음/전병곤 외 옮김
 돌베개/A5신/374면/15,000원

회주의 체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간과했으며, 구체적인 역사해석이나 사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유와 중국 사회문제와의 관계, 중국이 소련의 사회주의를 모델로 삼으면서도 소련과의 갈등관계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저항 등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지은이는 중국공산당이 대륙에서 사회주의국가를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공산당 지도부의 인내와 노력, 시의적절한 군사전략, 적합한 계급기반이라는 요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산당의 통치기반이 없었던 지역까지 포함해 어떻게 공산당이 결국 중국을 통합했는가는 중국의 사회구조와 일본의 침략, 그리고 민족주의가 유기적으로 결합했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몇가지 역사적 오류도 보여

역사사실 가운데 1931년 일본의 만주 점령시 국민당과 군벌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그곳에서 괴뢰정권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오류다(55쪽). 일본의 만주점령시 20만~30만명의 의

용군이 각지에서 다양한 단체를 결성해 항일운동을 폈고 국민정부도 비록 표면적으로는 무저항을 외쳤지만 내적으로 항일의용군을 원조했다는 점은 간과됐다.

용어상의 문제로, 저자는 '모택동 시기' '등소평 시기' 라고 명명하는 것이 한명의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춰 지도자의 성격을 너무 강조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사용했다. 중국이 한 지도자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인의 중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지은이는 중국사회주의의 특징으로 대중의사의 표출이나 대중의 정치참여, 대중관계에 착안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선별된 용어사용이 필요했다. '모택동 시기'는 '사회주의 실험이나 모색 시기'로 '등소평 시기'는 '개혁개방 시기' 등으로 명명했다면 전체 의도에 더욱 부합했을 것이다.

역서로서의 문제로, 부분적인 탈오자와 전족(纏足)을 '填足'(243쪽)이라 표기한 것, 인명 가운데 모택동과 등소평은 우리말 표현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중국식 발음으로 처리한 것은 통일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문장의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중국의 모든 공장이 억압적인 곳이라는 의미는 않는다"(290쪽), "중국의 국가는 제국주의 전제(專制)에서 단명했던"(17쪽) 등은 이 책의 옥에 티다.●